

『해동역사(海東繹史)』를 통해 본 조선 사학자의 전겸익(錢謙益) 수용 양상*

김려화**

- I. 서론
- II. 전겸익 저작의 조선 유입 및 유통
- III. 『해동역사』에 집록된 전겸익 저서 속의 기록들
- IV. 한치윤(韓致瀾)의 전겸익 수용과 그 의의
- V. 결론

<국문초록>

『해동역사(海東繹史)』는 조선 후기 사학자 한치윤(韓致瀾)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본고에서는 『해동역사(海東繹史)』의 전겸익(錢謙益) 저서 집록(輯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전겸익 수용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간 전겸익이 조선 후기 문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문학창작과 비평, 명·청 교체 과정에서 보였던 실절(失節)문제 등 측면에서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전겸익이 이룩한 역사학 성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치윤이 편찬한 『해동역사』에 체현된 수록 양상들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전겸익의 사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주고 있다.

전겸익의 문집과 작품들은 조선에 유입된 후 널리 읽혀진 것으로 보인다. 전겸익의 문집 『초학집(初學集)』과 『유학집(有學集)』의 여러 판본과 필

* 이 논문은 2020년 중국교육부사회과학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朝鮮後期海東繹史 對中國文獻的集錄研究, 20YJC752007)

**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남국상대학 부교수

사본, 그리고 그의 시 혹은 문장을 뽑아 다시 묶은 자료들도 한국의 관련 장서 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열조시집(列朝詩集)』과 『두시전주(杜詩箋注)』도 조선에서 유통되었으며 그가 편찬한 『간식유편(簡式類編)』과 척독을 수록한 『귀전척독(歸錢尺牘)』 역시 조선에 유입되었다.

한치윤은 『해동역사』 편찬 시 『초학집』, 『유학집』, 『열조시집』 뿐만 아니라 『두시전주』에 수록된 조선 관련 기록들까지 채록하여 역사 서술에 활용하였다. 그는 전겸익의 시사관(詩史觀)을 받아들여 『열조시집』의 한시 작품과 인물 소전(小傳)의 사료적 가치성을 인정하였고 시선집 속의 소전과 한시작품을 분리하여 역사서에 수록했다. 그리고 분명한 취사선택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조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술이나 사실과 맞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선택하거나 아예 배제시켰다. 『해동역사』에는 한치윤이 자신만의 기준과 융통성을 발휘한 흔적이 남아 있어 실로 조선후기 한 역사학자의 고뇌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학적 시각에서 학구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한치윤의 전겸익 수용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사관을 수용하고 또 자기화,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한치윤의 역사가로서의 식견과 역량이 잘 드러난다. 그는 기타 조선 문인들과는 달리 전겸익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후기 전겸익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던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학문적 수용만을 견지하려고 했던 한치윤의 원칙과 노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한치윤의 전겸익 수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후기 문학과 학술의 다양성을 입증하고 조선후기 지성사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어: 錢謙益, 『海東繹史』, 輯錄, 『初學集』, 『列朝詩集』, 역사서 편찬, 詩史觀

1. 서론

본고는 한치윤(韓致胤, 1765~1814)이 저술한 『해동역사(海東繹史)』의

전겸익(錢謙益, 1582~1664) 저서 집록(輯錄) 양상을 고찰하고 전겸익에 대한 한치윤의 인식과 『해동역사』가 조선 후기 전겸익 수용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전겸익 저서 속의 조선관련 기록에 대한 『해동역사』의 집록 기준을 살피고 그 의미를 구명하는 것은 조선 후기 역사서의 실상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해동역사』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편찬된 역사서로, 안설(按說)을 제외한 모든 기록들이 전부 다른 문헌에서 채록해 온 것이다. 『해동역사』 「예문지」와 이 예문지에서 집록 대상으로 삼았던 원전(原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된 바가 있다.¹⁾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해동역사』 「예문지」에 수록된 200여 종의 원전 중 인용횟수가 가장 높은 것은 35종인데, 그중 전겸익의 저서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이는 전겸익의 저서가 『해동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조선후기 전겸익의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박지원(朴趾源)의 독창성과 주제의식을 밝히는 과정에서 『열하일기(熱河日記)』 속 전겸익 관련 담론을 거론하게 된 논의가 최초의 연구이다.²⁾ 이후 『흙영(欽英)』에 대한 연구를 계기로 전겸익을 주목하고 그가 조선후기 문학사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³⁾ 그러나 본격적으로 조선후기 전겸익에 대한 수용 양상을 밝힌 연구는 조선후기 공안파(公安派)의 수용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⁴⁾ 김창협(金昌協)과 같은 노론들이 전겸익의 문학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⁵⁾ 이의현(李宜顯)은 전겸익의 영향으로 반의고적 산문비평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⁶⁾ 근래 전겸익에 대한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식양상과 수용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도 이루어졌다.⁷⁾ 그리고 전겸익이 편찬한 시선집 『열조시집(列

1) 김려화, 『『해동역사』 「예문지」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 심경호, 『燕巖의 錢謙益論』, 『한문교육연구』 제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88, 37~56면.

3) 김운조, 『조선후기 한문학에 있어서 錢謙益』, 『대동한문학』 제13호, 대동한문학회, 2000, 71~88면.

4)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소명출판, 2007;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5) 강명관, 『농암잡지평석』, 소명출판, 2007; 박경남, 『王世貞을 바라보는 두 大家의 시각-金昌協과 錢謙益의 왕세정 이해-』,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229~267면.

6) 민복기, 『陶谷 李宜顯 散文批評의 淵源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7) 윤지훈, 『朝鮮後期 文人들의 錢謙益 批評』,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35~64면; 류화정, 『조선후기 錢謙益의 수용과정과 인식양상』, 『한국한문학』

朝詩集)』을 한문세계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양상을 살피는 주요 텍스트로 삼은 연구도 있다.⁸⁾

이처럼 이미 축적된 전겸익 관련 연구는 주로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그 인물을 어떻게 인식해왔고 또 그의 문학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⁹⁾ 전겸익 문학과 문학비평의 유입과 수용 양상을 밝힌 기존 성과를 통해 조선후기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겸익의 글을 인용하여 문학비평의 도구로 삼거나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치윤이 『해동역사』에 전겸익 저서 속에 실린 조선관련 기록들을 채록하고 다시 역사서의 기록으로 재편집한 것은 독특하고 이례적이다.¹⁰⁾ 한치윤은 전겸익의 학문적 성과를 역사서 편찬에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문인들의 전겸익 인식과 수용을 논의할 때 한치윤과 그의 『해동역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해동역사』에서 전겸익 저작 속에 기록된 조선 관련 기록들을 집록한 구체적인 양상을 밝힘으로써 조선후기 역사학자 한치윤이 전겸익의 학술적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해명할 것이다.

우선 전겸익의 저서들이 조선에 유입, 유통된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이는 전겸익이 조선후기 문학과 관계할 때 논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 작업 중의 하나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해동역사』의 기록들을 출처에 따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구체

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309~342면; 이국진, 「조선후기 문인들의 전겸익 한시에 대한 관심과 의미」, 『한문학논집』 제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73~114면.

8) 임형택, 『한문세계의 중심과 주변-『列朝詩集』·『明詩綜』과 朝鮮詩部』, 『대동문화연구』 제9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299~328면.

9) 앞서 언급한 연구 성과 외에 嚴志雄의 「전겸익의 고려말, 조선초의 역사와 시에 관한 시론」, 『민족문화연구』 제6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51~87면)과 남재철, 『薑山筆彙』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0호, 한국한시학회, 2002, 285~314면)도 조선후기 전겸익 수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가 된다.

10) 물론 문헌 편찬에 있어 李德懋와 俞晚柱의 전겸익 수용도 특별한 사례이다. 이덕무의 『磊磊落落書』는 전겸익의 『列朝詩集』과 『有學集』을 중요한 참고서로 삼았고 유만주는 전겸익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의 연보를 만들어 놓았다. 한치윤과 이 두 사람의 전겸익 수용에 대한 비교 논의는 제4절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적인 집록 양상을 밝힐 것이다. 이어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역사와 문학사적 맥락에서 한치윤의 전겸익 수용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전겸익 저작의 조선 유입 및 유통

학계에서는 조선 문인들이 전겸익의 저작을 접한 시기를 1680년 초로 추정하고 있다. 그 저서들이 조선에 유입된 구체적 경로에 대해 김석주(金錫胄), 김창협, 이의현의 문집 속 관련 기록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¹¹⁾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은 이상 전겸익 저서의 유입 시점과 구체적 경로, 전겸익을 최초로 수용했던 주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답을 얻었다고 본다. 즉 조선에서의 전겸익 수용은 경화사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 전겸익의 수용 양상에 관해서도 한시, 문학비평 그리고 그의 인간성까지 이르러 풍부한 논의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유통 상황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전겸익과 조선후기의 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기초적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조선 문인들이 그의 시선집 『열조시집』과 문집 『초학집(初學集)』, 『유학집(有學集)』 속의 문학과 비평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그의 인간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주로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이라는 시각에서 조선후기 전겸익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가로 불리는 전겸익은 매우 박식하며 문학뿐만 아니라 경학, 사학, 불교 등 두루 섭렵하여 관련 저술을 남겼다.¹²⁾ 방대한 저작을 남긴 전겸익에 대한 조선후기의 수용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저서들의 전반적인 유통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의 다른 저서들도 조선에 유입되었는

11) 윤지훈(2008), 박경남(2011) 앞의 논문.

12) 전겸익이 명말청초 학술사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해 王俊義의 『論錢謙益對明末清初學術演變的推動,影響及其評價』(『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1996[2], pp.48~57)를 참고할 수 있다.

지, 조선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읽혔는지를 비롯한 저작의 유통 문제를 해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서지학 방법에 기대하여 조선에서의 전겸익 저술들의 유통 상황을 알아볼 것이다.

『청사고(淸史稿)』 『예문지(藝文志)』에 수록한 전겸익 저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淸史稿』 『藝文志』에 수록한 錢謙益 저서

순번	『淸史稿』 순번	『藝文志』 部類	錢謙益의 저술
1	卷146·志121	예문지2·目錄類	『絳雲樓書目』 1卷
2	卷147·志122	예문지3·釋家類	『楞嚴經蒙鈔』 10卷; 『心經略疏小鈔』 2卷; 『金剛經疏記懸判』 1卷; 『疏記會鈔』 1卷; 『金剛經論釋懸判』 1卷; 『偈記會鈔』 1卷
3	卷148·志123	예문지4·別集類	『杜甫工部集注』 20卷; 『初學集』 110卷; 『有學集』 50卷
4	卷148·志123	예문지4·總集類	『列朝詩集』 6集 81卷

목록서로 구분된 『강운루서목(絳雲樓書目)』은 ‘목재서목(牧齋書目)’라고도 한다. 이 책은 필사본과 인쇄본 두 가지 계열로 전해지고 있다.¹³⁾ 현재 규장각에 이 서목이 소장되어 있는데 광서(光緒) 연간에 간행한 『월아당총서(粵雅堂叢書)』 초편(初編)에 수록된 것이다.¹⁴⁾ ‘강운루’를 언급했던 조선 문인들이 그것이 화재로 훼손된 전겸익의 장서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재 후 전겸익의 기억으로 편찬된 『강운루서목』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석가류(釋家類)에는 전겸익이 편찬한 책 6종을 수록하였다. 그의 문집에 실린 승려들과 주고받은 글을 통해 그가 불교로부터 받은 영향을 추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6종 불교저서야말로 불교에 대한 전겸익의 이해와 자기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특히 『능엄경

13) 필사본 계열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陳景雲 주석본과 주석이 없는 판본이 남겨져 있다. 인쇄본은 보통 네 권으로 구성된 것이 전해지는데 그 첫 번째 각본은 粵雅堂叢書本이다. 『청사고』에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필사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王紅蕾, 『絳雲樓書目』各抄本互異原因考略, 『文獻』, 文獻雜誌編輯部, 2010[3], pp.64~68.)

14) 규장각에 소장된 『粵雅堂叢書』의 청구기호는 ‘奎中 5969’이다.

몽초(楞嚴經蒙鈔)』가 명나라 여러 『능엄(楞嚴)』에 대한 주석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¹⁵⁾ 이 책은 조선에도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조선후기 전겸익을 비판한 문인 가운데 그가 불교에 심취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 삼았던 사람도 있었다. 물론 그러한 근거는 전겸익의 문집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능엄경몽초』와 같은 불교서적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조선 지식인들에게 전겸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 책을 제외한 나머지 불교저서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별집류(別集類)에 수록한 것은 잘 알려진 그의 문집 『초학집』과 『유학집』 그리고 『두보공부집주(杜甫工部集注)』이다. 전겸익이 명나라 말기까지 쓴 글을 모은 『초학집』은 ‘목재초학집(牧齋初學集)’이라고도 한다. 승정(崇禎) 16년(1643) 구식사각본(瞿式耜刻本)이 가장 널리 유통된 판본이다.¹⁷⁾ 현재 한국의 여러 장서기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영조 12년(1736) 필사본도 소장되어 있는데¹⁸⁾ 박지원의 ‘우리 나라의 선배들은 (...) 그의 시문을 뽑았다’¹⁹⁾라는 말을 입증하고 있다. 그밖에 전겸익의 족손 전증(錢曾)이 전주(箋註)를 단 『목재초학집시주(牧齋初學集詩註)』 20권도 있는데 이 책은 『초학집』 중의 시집에 주석을 붙인 것으로 규장각과 장서각을 비롯한 여러 장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⁰⁾ 판본으로는 명대 판본, 청대 옥조당본(玉詔堂本) 그리고 일본 메이지(明治) 시대 판본 등이 있다.

15) 孫之梅, 『錢謙益與明末清初文學』(增訂版), 山東大學出版社, 2010, 433면.

16) 전겸익이 편찬한 ‘大佛頂首楞嚴經疏解蒙鈔’라는 제목으로 된 책이 규장각(청구기호 奎中 2772-v.1-26)을 비롯한 여러 장서기관의 소장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85년 간본(장서각 청구기호 J3-78)과 1780년경에 간인한 판본(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리고 1889년에 간인한 것(고려대학교 도서관 청구기호 대학원C3-B23-1-20)까지 모두 세 가지 종류가 확인된다.

17) 瞿式耜(1590~1650)는 전겸익의 門人으로 朴趾源의 『熱河日記』 『銅蘭涉筆』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는 1643년 9월에 遼漢齋에서 『牧齋初學集』을 간인하였다. 이 책의 판본에 관한 설명은 『牧齋初學集』(錢謙益 著, 錢曾 箋註, 錢仲聯 標校, 『牧齋初學集』上, 上海古籍出版社, 2009) 『出版說明』에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18)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初學集』 필사본의 청구기호는 ‘만송D1-A1283A’이다.

19)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涉筆』, “我東之先輩, 不知受之之失身, 徒見其‘有學’·‘初學’等集, 未嘗不爲之傷惜, 抄其詩文, 多列之文丞相·謝疊山之下.”(1780년)

20) 규장각에 소장된 『牧齋初學集詩註』의 청구번호는 ‘4317’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된 이 책의 청구번호는 ‘J4-75’이다.

『유학집』은 전겸익이 1645년부터 1663년까지 지은 시문을 총 51권으로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강희(康熙) 3년(1664) 각본과 강희 24년(1685) 금궐산방(金匱山房) 각본이 있다. 여기에 실린 시를 뽑아 전주를 붙인 『목재유학집시주』도 역시 간행된 바 있다. 잘 알려진 것이 옥조당 각본이다. 현재 이 세 가지 판본은 모두 한국의 장서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사본도 규장각과 장서각을 비롯한 여러 장서기관에 소장되어 있다.²¹⁾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전겸익의 문집이 조선 문인에게 널리 읽혔다고 밝혔다. 『초학집』과 『유학집』의 각종 판본의 유통과 필사본의 존재가 이러한 상황을 실물로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 문인의 전겸익 수용은 편찬 활동까지 이어졌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만주(兪晩柱)가 전겸익을 읽은 후 그의 연보를 편찬했다는 사실이다.²²⁾ 현재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에 소장된 『목재시(牧齋詩)』와 『우산집(虞山集)』,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목재문초(牧齋文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문선(文選)』²³⁾은 전부 필사본 형태인데 모두 조선후기 문인들이 전겸익 문집에서 발취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전겸익이 만년에 쓴 시를 모은 시집인 『투필집(投筆集)』도 전하고 있는데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의 장서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이덕무의 『세정석담(歲精惜譚)』 외에 언급되는 곳이 없다.²⁴⁾

『두보공부집주』는 일찍이 조선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장각에는 ‘두공부집(杜工部集)’으로 제목을 명명한 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실제 전겸익의 『두공부집전주(杜工部集箋註)』를 저본을 삼아 편찬한 것이라고 한

21) 규장각에 소장된 『有學集』 필사본의 청구번호는 ‘3424-8’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의 청구기호는 ‘D3C-11’이다.

22) 유만주의 전겸익 수용에 대해 김하라의 『유만주의 전겸익 수용-조선 후기 지식인이 명칭 교체기 문학을 읽는다는 것』(『한국문화』 제6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3~42면)과 『유만주의 <전겸익연보> 연구』(『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265~308면)를 참고할 수 있다.

23) 성곡도서관에 소장된 『牧齋詩』의 청구번호는 ‘고 821.6 전01-1’이고 『虞山集』의 청구번호는 ‘고 820.819 전01-2’이다.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牧齋文抄』의 청구번호는 ‘신암D1-A1283’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文選』의 청구번호는 ‘한古朝44-나37’이다. 그리고 ‘문선’으로 명명한 이 자료는 전겸익의 일부 序文, 묘지명과 서신을 뽑아 초록한 것이다.

24) 류화정 앞의 논문, 315면.

다.²⁵⁾ 『해동역사』에는 이를 ‘두시전주(杜詩箋注)’로 기록하였는데 사실 ‘전주두시(錢注杜詩)’라고도 한다.²⁶⁾ 이의현이 1720년 연행에서 구입한 온 51종 서적 가운데 『전주두시』 6권이 있었는데 이 책으로 보인다.²⁷⁾ 또한 1805년 연행을 다녀온 원재명(元在明)이 쓴 『지정연기(芝汀燕記)』에서 청나라 문인이 그가 읽고 있었던 『전주두시』가 두시(杜詩)에 대한 매우 좋은 주석서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²⁸⁾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전겸익이 편찬한 이 책 역시 조선에서 어느 정도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총집류(總集類)에 수록한 『열조시집』은 잘 알려진 명대의 시가총집이며 1680년대부터 조선 문인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다. 판본으로는 1652년 급고각각본(汲古閣刻本)과 1910년 선통이년본(宣統二年本) 두 가지가 있다.²⁹⁾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장서 기관에 소장한 이 책은 대부분 1652년에 간인한 판본이다. 앞서 언급한 이의현이 구입한 온 책 가운데 이 책에 실린 시인들의 ‘소전’을 모은 『열조시집소전(列朝詩集小傳)』 10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의현은 『도협총설(陶峽叢說)』 104 조항에서 『열조시집』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조선 문인들이 이 시선집을 주목했던 주요 원인은 그 속에 조선의 한시를 수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속의 조선과 관련된 오류 정보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을 썼다. 특히 이서구(李書九)는 『강산필치(薑山筆笏)』를 통해 이 책과 『명시중(明詩綜)』 속의 조선과 관련된 오류 정보를 자세히 따졌다.³⁰⁾

『정사고』 『예문지』에 수록한 저서 외에 전겸익은 역사학 분야에서도 주목받은 성과를 남겼다. 그는 천계(天啓) 원년(1621)에 경성으로 다시 돌아가 명나라 『신종실록(神宗實錄)』 편찬을 담당할 때 내각에 보존된 서적과

25) 규장각에 소장된 『杜工部集箋註』의 청구번호는 ‘古895.1143-D85d-v.1-6’이다. 또한 康熙 원년에 葉永茹가 간인한 『杜工部詩集』이 존경각(청구번호 D03C-0044)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은 朱鶴齡이 輯註하고 전겸익이 감정한 것이다.

26) 2009년에 중국 上海古籍出版社에서 『錢注杜詩』(杜甫 著, 錢謙益 注) 2冊을 간행하였다.

27)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陶谷集』 권30, 한국고전번역원DB.

28) 元在明, 『芝汀燕記』 권3, 한국고전번역원DB.

29)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 1654년에 간행한 『열조시집』도 있는데 이는 1652년 판본을 따라 다시 간인한 것이다. (李志, 『錢謙益<列朝詩集>成書時間舉疑』, 『哈爾濱職業技術學院學報』, 哈爾濱職業技術學院, 2020[2], pp.155~156.)

30) 남제철, 앞의 논문.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물론 그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들도 접하게 되었다. 전겸익은 실록을 편찬하는 편리를 이용하여 역사서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는 명나라 천계 4년(1624)에 『황명개국공신사략(皇明開國功臣事略)』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3년을 걸쳐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 책이 이미 실현되어 현재 『초학집』 속의 관련 글들을 통해 이 책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그가 천계 7년(1627)에 편찬한 다른 역사서 『개국군웅사략(開國群雄事略)』은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리고 『태조실록변증(太祖實錄辨證)』도 편찬하였는데 그 내용이 주로 『황명개국공신사략』과 『개국군웅사략』에서 발췌해 온 것이다. 『태조실록변증』은 5권으로 구성된 역사고증서로 『초학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사실 전겸익이 명사(明史)를 편찬한 바도 있다. 명나라 말기부터 시작한 명사 편찬 작업은 『열조시집』의 편찬과 동시 진행하였는데 순치(順治) 7년(1650)에 강운루 화재로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전겸익은 역사서 네 부를 편찬하였고 청대 역사고증학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³¹⁾

예문지나 조선 문인들의 글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전겸익 관련 서적들도 있다. 우선 그가 편찬한 『간식유편(簡式類編)』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편지 각 부분에 사용되는 표현과 편지 작성에 필요한 상식을 종류별로 제시하였다.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간독편(簡牘編)’이라는 서명이 붙은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바로 이 책이다. 1793년 이인석(李寅錫)이 이 책에다 김정(金淨)의 『동인예식(東人例式)』을 보충하여 새로운 『간식유편』을 편찬하였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 필사본을 소장되어 있다.³²⁾ 또한 전겸익과 귀유광(歸有光)의 척독을 선별한 『귀전척독(歸錢尺牘)』도 있는데 필사본 형태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청나라 고역집(顧軾輯)이 편찬한 것으로 1699년에 간행하였다.³³⁾

31) 전겸익의 사학적 성과에 대해 孫之梅, 앞의 책(303~316면)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또한 段曉亮이 『錢謙益의 明史考證及影響』(『石家莊鐵道學院學報(社會科學版)』, 石家莊鐵道學院, 2008[9], pp.32~36)에서 전겸익의 역사고증학적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32) 각 도서관에 소장된 이 자료의 청구기호는 다음과 같다. 원광대학교(AN802.6-ㄷ266), 성곡도서관(고 826.6 전01), 규장각(古3438-10), 국립중앙도서관(g1367-139), 동국대학교(D808.0419-전1472) 등이다.

33) 그밖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전겸익이 교정을 본 宋濂의 『宋文憲公護法錄』 목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李攀龍이 선별하고 전겸익이 평점을 붙인 『增補唐詩選』

지금까지 한국에 소장된 전겸익 관련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전겸익 저서의 유입 및 유통 상황을 알아보았다. 이는 『해동역사』에서 전겸익 저서를 주요 집록 대상 중의 하나로 삼았던 전제조건이자 문헌적 배경이다. 한편으로 1914년부터 1927년까지 편찬한 『청사고』에 『전겸익전(錢謙益傳)』을 수록하였는데 특히 그의 저술에 대해 “건륭34년에 그의 판각을 훼손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으나 그의 책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며 끊이지 않는다”³⁴⁾라고 하는데서 전겸익에 대한 문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20세기 90년대부터 전겸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의 문집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³⁵⁾

III. 『해동역사』에 집록된 전겸익 저서 속의 기록들

『해동역사』의 성립 시기는 19세기 초엽이다. 이때 전겸익의 저술이 이미 조선에서 백 여 년 동안 유통되어 조선시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해동역사』의 인용서목에서 밝힌 전겸익의 저술로는 『초학집』, 『유학집』, 『두시전주』, 『열조시집』 총 4종이다. 전증이 주석을 단 『목재시집』도 인용서목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용은 확인되지 않는다.³⁶⁾ 이 소절에서는 『해동역사』에 집록된 전겸익의 저서를 문집과 시선집(詩選集)으로 나누어 한치윤의 전겸익 수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明治년간 목판본도 소장되어 있다.

- 34) “乾隆三十四年(1769), 詔毀板, 然傳本至今不絕.”(『清史稿』『錢謙益傳』, 中國基本古籍庫)
- 35) 중국에서는 일찍이 『錢牧齋全集』(上海古籍出版社, 2003)을 출판하였다. 이는 전겸익의 대부분 글과 저술들을 한데 묶은 것이며 전겸익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명청시대 문학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집에 빠진 글들도 있다. 그래서 전집이 출간된 이후에도 전겸익 佚文을 발굴하는 작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嚴志雄은 『錢謙益의 ‘詩史’理論與實踐』(中華書局, 2019) 2면 주석 2번에서 전겸익에 대한 연구를 자세히 정리하였다.
- 36) 『海東譯史引用書目』에는 『牧齋詩集注』의 편찬자를 ‘錢曾王’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錢曾의 자는 遵王인데 여기에서 그의 이름과 자를 혼동하여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牧齋詩集注』에 대한 인용도 『海東譯史』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편찬자를 ‘錢曾王’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한치윤·한진서 숙질은 실제로 『牧齋詩集注』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牧齋詩集注』에 수록된 그 많은 조선관련 기록들이 『海東譯史』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1. 『초학집(初學集)』과 『유학집(有學集)』에 대한 집록 상황

『초학집』은 1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20권, 문(文)이 80권이며 그밖에 『태조실록변증』 5권, 『독두소전(讀杜小箋)』 3권, 『독두전(讀杜箋)』 2권 등도 함께 실려 있다. 『독두소전』과 『독두전』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두시전주』를 편찬하는 기반이 된 자료들이다. 『해동역사』에는 『초학집』에서 채록한 기록이 총 12곳이 있다. 편찬 관례에 따라 해당 기사 끝에 전부 서명인 ‘초학집’을 밝혔으나 더 구체적인 출처표시는 없었다. 『해동역사』 속의 12개 기록을 『초학집』과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³⁷⁾

<표2> 『海東繹史』의 『初學集』 집록 양상

순번	『海東繹史』 권차	해당 항목	주요 내용	『初學集』 속의 출처	집록 방법
1	권2	世紀2·箕子朝鮮	기자조선에 관한 기록	해당 기록이 없음	---
2	권22	樂志·樂制樂器	송나라 악공이 고려에서 음악을 채집	제2권 <送劉編修鴻訓頌詔朝鮮十首> (其六)의 주석	離合法
3	권29	宮室志·城闕	寶文閣과 淸燕閣은 고려의 秘閣임	<送劉編修鴻訓頌詔朝鮮十首> (其七)의 주석	轉載
4	권29	宮室志·城闕	臨川閣은 장서한 곳임	<送劉編修鴻訓頌詔朝鮮十首> (其七)의 주석	轉載
5	권38	交聘志6·上國使2	劉鴻訓을 조선으로 파견	해당 기록이 없음	---
6	권42	藝文志1·經籍1	臨川閣은 장서한 곳임	<送劉編修鴻訓頌詔朝鮮十首> (其七)의 주석	轉載
7	권50	藝文志9·中國詩1	劉鴻訓에게 준 송별시	<送劉編修鴻訓頌詔朝鮮十首>	轉載
8	권50	藝文志9·附錄	毛文龍에게 준 송별시	제2권 <寄東江毛摠戎>	轉載
9	권57	藝文志16·中國文4	蕭應宮의 墓誌銘	제56권 『明故整飭遼陽等處海防監督朝鮮軍務山東按察使蕭公墓誌銘』	離合法

37) 대조 작업에 사용한 『初學集』 판본에 관하여 김려화, 앞의 논문, 115~116면과 223면을 참조하였다.

10	권65	本朝備禦考5 ·附錄	壬辰倭亂 관련 기록	제25권 『東征二士錄』	離合法
11	권66	本朝備禦考6 ·北憂始末	明清交替 관련 기록	제73권 『紫髯將軍傳』	離合法
12	권78	地理考13· 山水1	獐子島에 관한 일화	『紫髯將軍傳』	離合法

1번의 출처는 『초학집』 속 시의 주석(初學集詩註)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초학집』을 실제 검토한 결과, ‘기자(箕子)’가 나온 곳이 두 개 밖에 없는데 모두 시의 주석은 아니다.³⁸⁾ 또한 5번도 마찬가지로 『초학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초학집』에는 <조선에 조서를 반포하러 가는 편수 유홍훈을 전송하다 10수(送劉編修鴻訓頒詔朝鮮十首)> 외에 유홍훈을 언급한 곳이 없다. 그러나 이 시에는 유홍훈을 조선으로 파견한 시기와 조서를 반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5번 기록처럼 서술한 내용이 없다.³⁹⁾ 1번과 5번은 『명사(明史)』와 같은 자료와 뒤섞여 잘못 기록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2번은 같은 시 여섯 번째 작품 속의 전겸익이 첨부한 자주(自註)를 인용한 것이다. 다만 『해동역사』에서는 원래 자주(自註)의 첫 글자, 시대를 표명하는 ‘송(宋)’을 제외하고 인용하였다.⁴⁰⁾ 원문 기록의 일부를 절취하여 새로운 기록으로 편집하는 이 방법은 ‘이합법(離合法)’으로 규명할 수 있다.⁴¹⁾ 2번 기록은 원전 속의 주석을 정문으로 편집하는 『해동역사』의 전형적인 집록 방

38) 하나는 <送劉編修鴻訓頒詔朝鮮十首(其五)>의 첫 구절 “箕子墓封檀君祠”이며 다른 하나는 <獄中雜詩三十首(其十一)>의 세 번째 구절 “東國已非箕子國”이다. 그러나 『海東譯史』에 수록된 1번 기록이 “箕子都平壤, 是爲後朝鮮”인데 이러한 자註는 『초학집』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39) 『海東譯史』 『交聘志6·上國使2』에 실린 5번 기록은 “熹宗天啓元年, 翰林編修劉鴻訓, 頒詔朝鮮.”이다. 그러나 『初學集』에 실린 <送劉編修鴻訓頒詔朝鮮十首>의 자註에는 “余議頒詔朝鮮, 當草哀痛詔, 致祭東征陳亡屬夷, 而閣部無言及者, “東征余以次當行, 謀從東出奇兵, 搗奴老巢. 劉行, 余遂寢其議, 故末章及之.” 등 유홍훈의 조선 파견과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5번과 비슷한 글이 확인되지 않는다.

40) 『初學集』에 실린 <送劉編修鴻訓頒詔朝鮮十首>(其六)의 자註에는 “宋熙寧中, 命樂工采樂於高麗”라고 하였다.

41) ‘離合法’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한데 모으고 또 모은 자료들이나 원래부터 한 군데 기록한 내용을 다시 분류하여 수록한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轉載’는 원전의 내용을 변화 없이 그대로 인용한 집록 방법을 가리킨다. 『海東譯史』에서 사용된 이 두 가지 집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김려화, 앞의 논문, 148~162면과 124~140면을 참조할 수 있다.

식 중의 하나이다. 3번, 4번, 6번, 7번은 모두 2번과 같은 시에서 채록한 기록이다. 3번과 4번은 일곱 번째 시의 자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해동역사』에서도 협주(夾註) 형식으로 편집하였다. 원전 속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이와 같은 편찬방식을 ‘전재(轉載)’로 규명할 수 있다. 6번은 4번과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7번은 <조선에 조서를 반포하러 가는 편수 유흥훈을 전송하다 10수> 전시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8번도 전재 방법으로 <동강의 모충용에게 부치다(寄東江毛摠戎)>를 그대로 수록하였다.

9번은 『초학집』 제56권 첫 번째 글 「명나라 고 정칙요양등처 해방감독 조선군무 산동안찰사 소공의 묘지명(明故整飭遼陽等處海防監督朝鮮軍務山東按察使蕭公墓誌銘)」의 대부분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원전과 대조한 결과, 『해동역사』에서는 일부 내용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240자 정도에 이른 문자를 생략하였는데 생략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외모나 가족을 언급한 내용이거나 지극히 개인사에 관한 일화들이다. 예를 들어 소응궁(蕭應宮)이 젊은 나이에 혼자서 강도 수십 명을 물리쳤다는가 친히 대도(大盜)를 체포했다는가 또 변방을 굳게 지켜 이름을 날렸다는가 모두 ‘조선’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0번은 제65권에 실린 「동정이사록(東征二士錄)」에 대해 집록한 것이다. 원문과 대조한 결과 생략한 부분이 여러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두 곳은 조선의 국왕을 언급한 기록이고 나머지는 각각 글 속의 주인공 김상(金相)과 풍중영(馮仲纓) 생전에 있었던 일화들인데 역시 조선의 역사와 직결된 내용이 아니다.

11번과 13번은 모두 권73에 수록한 「자염장군전(紫髯將軍傳)」에서 채록한 것이다. 「자염장군전」은 명말 장수 주문옥(周文郁)이 청나라에 대적한 행적을 기술한 글이다. 11번과 13번은 이 글 가운데 조선과 관련된 기록들을 뽑아 다시 『해동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원문 편쪽에 비하여 집록된 기사들이 짙막한 편이다.

이상으로 수록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동역사』에서의 『초학집』 집록 상황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두 가지 양상이 눈에 띈다. 하나는 『해동역사』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기록들이고 다른 하나는 『초학집』에 적혀 있으나 『해동역사』에서 배제시킨 조선관련 기록들이다.

반복하여 수록된 것은 유흥훈을 대상으로 쓴 송별시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에 단 자주가 『해동역사』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천각(臨川閣)은 책을 모아 놓은 곳이다’⁴²⁾라는 자주가 『해동역사』에서 3번이나 등장하였다. 조선의 성궐을 기록하는 ‘궁실지’에 한 번 등장했고, 조선의 서책을 기록하는 ‘예문지’에 두 번 등장하였다. 편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복 집록을 통해 조선 서적 문화의 역사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와 동시, 집록된 기사의 출처인 『초학집』과 저자인 전겸익도 『해동역사』가 전개한 역사서술 속에서 각인되기 마련이다. 전겸익이 고증을 통해 밝힌 주석내용을 한치윤의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한 점을 통해 그의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해동역사』에는 사실 『초학집』 속의 모든 조선 관련 기록들을 전부 집록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겸익의 『초학집』에 어떠한 조선 관련 기록들이 한치윤의 『해동역사』에 수록되지 않았을까. 한치윤은 어떠한 기준으로 취사선택 했을까.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우선 전겸익이 쓴 <옥중에서 쓴 잡시 삼십 수(獄中雜詩三十首)>의 열한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다.

三韓殘破似遼西
並海緣邊盡鼓鼙
東國已非箕子國
高驪今作下句驪
中華未必憂寒齒
羣虜何當悔噬臍
莫倚居庸三路險
請封函谷一丸泥

(逆虜吞併高麗, 奪我屬國, 中朝置之不問.⁴³⁾)

삼한(三韓)은 파괴되어 요서(遼西)와 같아졌고
바닷가 변방에는 고비소리 사라졌네.
동국은 이미 기자의 나라가 아니며
고구려는 이제 ‘하구려’라 부르네.
중화가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걱정을 하지 않으니
오랑캐들이 언제 서제(噬臍)의 후회를 하겠는가?
거용관(居庸關) 삼로의 험준함에 의지하지 말 것이니
청컨대 흙 한 덩어리로 함곡관을 봉해버리리라.

오랑캐가 고려를 병탄하여 우리 속국을 약탈하였는
데도 한나라 조정에서는 그 죄를 논하지 않았다.)

42) “臨川閣, 其聚書籍之所.” <送劉編修鴻訓頒詔朝鮮十首>(其七), 『牧齋初學集』.

43) 錢謙益 著, 錢曾 箋注, 錢仲聯 標校, 『牧齋初學集』(上),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3~394면.

『초학집』 권12에 수록된 이 시는 전겸익이 1637년에 옥중에서 쓴 회고시(懷古詩)이다. 동한(東漢) 변방과 관련된 역사 사건을 회상하면서 외적의 침입에 대해 비통과 슬픔을 토로하고 외적과 싸워 중국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해동역사』에 이 작품을 수록하지 않은 이유는 “고구려는 이제 ‘하구려’라 부르네(高驪今作下句驪)”라는 구절과 전겸익이 단 주석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과 주석을 보면 시인이 동한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왕을 위해 흙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함곡관을 막겠다’는 구절이 동한 효장(囂將) 왕원(王元)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⁴⁴⁾ 그리고 주석 가운데 한나라 때 설정한 기관 ‘중조(中朝)’라는 단어를 통해 이 시가 한나라 때 역사를 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를 하구려로 부른다’는 것도 『후한서(後漢書)』 속의 『왕망전(王莽傳)』과 『동이전(東夷傳)』에 왕망이 고구려를 하구려로 개명하였다는 기록에, 그 전거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치윤이 고구려를 낮추어 불렀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인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동역사』 권51 『예문지』 10 ‘중국시’¹에는 청나라 문인 우동(尤侗)의 <조선의 죽지사(朝鮮竹枝詞)> 네 수를 수록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시가 다음과 같다.

高句麗降下句驪	고구려를 낮추어서 하구려라 부른다니
未若朝鮮古號宜	조선이란 옛 이름을 칭한 것만 못하구나.
千里王京陳百戲	천리 먼 왕경에서 백희를 내보고
漢城猶見漢官儀	한양에서 여전히 한관의 위풍 보이네.

시의 끝에 시인이 붙인 자주도 함께 실었다. 수나라에서 고구려를 정벌하였는데 고구려가 귀순하지 않자 이에 고구려를 낮추어서 ‘하구려’라고 하였다고 한 내용이다.⁴⁵⁾ 한나라를 수나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우동의 시는 박지원과 이덕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⁴⁶⁾ 그런데 한치윤은 틀린 정보를 실

44) “囂將王元說曰：請以一丸泥，爲大王東封函谷關。”(『後漢書』『隗囂傳』)

45) <朝鮮竹枝詞>(其一)의 자주는 다음과 같다. “古朝鮮竝入高句驪，隋征之不服，貶爲下句驪。洪武中入貢，奉詔更號朝鮮，以漢城爲王京。詔使至，陳百戲。”

은 우동의 시를 수록하고 오히려 정확하게 서술한 전겸익의 시를 수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사학자의 실수라고 설명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문제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한치윤이 많이 참고했던 이덕무도 우동의 <조선죽지사>에 잘못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였다.⁴⁷⁾

이 문제는 『해동역사』의 편찬목적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 자료를 이용하여 편찬된 『해동역사』의 편찬과정에 편찬자가 외부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편찬자 한치윤이 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외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조선이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어떠한 점에서는 외국 문헌 속에 기록된 조선의 다양성을 서슴 없이 보여주면서도 경우에 따라 간혹 조선의 이미지에 불리한 것을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즉 조선과 관련된 외국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조선의 역사상(歷史像)을 재구하는 목적으로 『해동역사』를 편찬하였지만 자국 중심적이고 자국의 역사문화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그 편찬목적의 이면에 있는바, 흡사한 사료를 택일할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선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이고 문명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같은 사건에 전거하고 있는 두 작품 가운데 우동의 죽지사가 역사상 조선의 상(像)을 부각하는 데 더 호의적이다. 이를 택하는 동시에 그와 상이한 역사 정보를 담은 전겸익의 시를 배제하여 『해동역사』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조선의 모습을 기록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전겸익의 이시가 『열조시집』에도 나왔지만 역시 수록하지 않았다.⁴⁸⁾

다음으로 『유학집』에 대한 집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해동역사』에는 이 책에 대한 집록이 4개가 있다. 그 구체적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46) 朴趾源의 『熱河日記』·『避暑錄』;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권53, 『耳目口心書』, 6.

47)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권53, 『耳目口心書』, 6. “清儒尤侗字展成, 號悔庵, 長洲人也. 作外國竹枝詞百餘篇, 各道其風俗, 又有注脚. 試觀咏朝鮮者, 凡四首, 摺拾風聞, 多所訛謬. 今皆記之. 中國最近者如此, 則其餘遐裔, 可推也. 其一曰: 高句麗降下句麗, 未若朝鮮古號宜, 千里王京陳百戲, 漢城猶見漢宮儀. 注曰: 古朝鮮并入高句麗, 隋征之不服, 貶爲下句麗. 洪武中入貢奉詔, 更號朝鮮, 此不知中間有高麗也.”

48) 錢謙益의 『列朝詩集』 閏集 ‘孫谷’의 小傳에서도 위의 <獄中雜詩>를 인용하였다.

<표3> 『海東繹史』의 『有學集』 집록 양상

순번	『海東繹史』 권차	해당 항목	주요 내용	『有學集』 속의 출처	집록 방법
1	권38	交聘志6· 上國使2	조선에 조서 반포	권46 『跋皇華集』	離合法
2	권43	藝文志2· 經籍2	『皇華集』의 발문	권46 『跋皇華集』	轉載
3	권44	藝文志3· 經籍3	고려관 『柳文』의 발문	권46 『跋高麗板柳文』	離合法
4	권59	藝文志18· 雜綴	시를 구하러 함양에 온 조선 사람	권47 『題爲龔孝升書近詩冊子』	離合法

1번과 2번은 같은 글에서 발췌한 기사들인데 1번은 조서를 반포한 사실만 채록하였고 2번은 원문 전체를 그대로 수록하였다. 사실 전겸익이 쓴 이 발문은 조선 문단에서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⁴⁹⁾ 조선 시문 폄하한 비평이 조선 지식인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다.⁵⁰⁾ 한치윤은 『예문지』 ‘경적’ 부분에서 ‘황화집(皇華集)’을 중심으로 사료를 수집하였다. 거기에 전겸익의 발문을 수록하였을 뿐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전겸익의 폄하한 평가 앞뒤에 다른 서적에서 채록해 온 ‘황화집’ 관련 기사들을 열거해 놓으면 독자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내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3번은 전겸익이 쓴 발문에서 집록한 것이다. ‘비록 이씨가 찬시로 나라를 얻었지만(李氏雖纂弒得)’을 제외하고 거의 전문을 그대로 수록한 셈이다. 생략한 구절에서 드러난 조선왕실 정통성 문제를 겨냥한 구절이기에 역시 조선 문인들이 충분히 반감을 느낄만한 대목이다. 4번은 해당 서문 가운데서 조선인을 언급한 내용을 채록한 것인데 원문의 300여자 중에서 40여자만 뽑았다.⁵¹⁾ 조선인의 복장과 행동을 묘사한 구절이다. 다소 호의적이지

49) 『海東繹史』 ‘藝文志’ 및 『有學集』에 수록된 문제가 되었던 문장은 다음과 같다. “東國文體平衍詞林，諸公不惜賤調就之，以寓柔遠之意，故絕少瑰麗之詞。若陪臣篇什，每二字含七字意，如國內無戈坐一人者，乃彼國所謂東坡體耳，諸公勿與酬和可也。”

50) 조선 지식인들이 전겸익의 이 발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심경호, 앞의 논문(1988)과 김하라, 앞의 논문(201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51) “頃龔孝升至吳門，出素冊，屬寫近詩，扁舟細雨，聊爲命筆。詩選之刻，流傳咸陽。聞高句麗使

않은 서술이지만 한치윤은 조선인이 함양(咸陽)에 가서 시선집을 구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해당 기사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집』에 조선을 언급한 내용이 더 있으나 『해동역사』에는 더 이상 수록하지 않았다. 배제된 기록 가운데 조선과 관련하여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학집』 권38에서 『열조시집』을 언급한 내용이 있어 짚어 본다.

계미년에 이미 『국초급군웅사략(國初及群雄事略)』의 편찬을 완성하였다. 구가헌(瞿稼軒)이 『초학집』을 각인하면서 『사략』 속의 일부 문장과 단락을 취해 『태조실록변증(太祖實錄辨證)』 한 편으로 엮어 그것을 『초학집』의 일부분으로 삼았다. 기실 『변증』은 초고로 미완성된 책이라 오류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상란(喪亂)을 겪고 남북 양쪽에서 모두 감옥살이를 하였으나 편찬 작업을 그만 두지 않고 더하고 줄이며 바로잡는 작업을 하였으니 수정본은 초고와 달랐다. 또 팔 년이 지나 화재를 입어서 책들이 찢어미가 되었는데 『변증』의 초고와 수정본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열조시집』에 실린 유치(劉廕), 유삼오(劉三吾) 그리고 조선의 배신(陪臣)과 관련된 일들이 모두 『변증』 초고에서 나온 것이니 그 내용이 원용하여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癸未歲, 『國初及群雄事略』已削稿。瞿稼軒刻『初學集』, 取其文略成章段者爲『太祖實錄辨證』一編, 以充卷帙, 其實則初稿未成之書, 闕誤弘多。次復洊經喪亂, 羈囚南北而編摩之事未嘗寢閣, 增損刊正, 遂與初稿頓異。又八年, 劫火告災, 遂成煨燼, 初後同異, 不復記憶。今『列朝詩集』載劉廕、劉三吾及朝鮮陪臣諸事, 皆出於『辨證』初稿之後, 則此稿之不堪援據從可知矣。)⁵²⁾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검익이 스스로 밝힌 『열조시집』에 수록된 해당 내용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학집』에 수록된 『태조실록변증』이 원래 『국초급군웅사략』에서 일부 내용을 취해 다시 편찬되어 전검익의 문집에 편입하였던 초고에 불과하다. 오류도 많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수정한 내용도 보존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열조시집』 속의 유치, 유삼오 그리고 조선 배신과 관련된 기록들이 모두 초고에서 나온 것

人, 頗相訪問。而大冠如箕, 有戟手罵詈者。”(『海東譯史』 권59 『藝文志』 18 『雜綴』 52) 『有學集』 권38, 『與吳江潘力田書』.

이니 그 오류도 짐작할 수 있다는 고백이다. 전겸익의 저서를 꼼꼼히 읽고 관련 자료를 선별했던 한치윤은 분명히 이 글을 보았을 것이다. 『열조시집』은 간행하자마자 한·중 문단에서 이슈를 불러일으킨 ‘화제작’이다. 물론 그 속의 오류나 착오적 논평으로 받은 지적도 많았지만 그것의 문학사적 위치와 영향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조선후기 문인들이 『열조시집』에 대한 인식과 평가 가운데 『해동역사』의 집록 편찬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어서 전겸익이 편찬한 시선집에 대한 집록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열조시집(列朝詩集)』에 대한 집록 상황

『해동역사』가 조선후기 지성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전겸익과의 『열조시집』 역시 조선후기 문학사, 특히 문학 교류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헌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은 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열조시집』이 『해동역사』의 중요한 참고 원전 중의 하나인 사실은 이미 『해동역사』 「예문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다. 「예문지」에서 집록 대상으로 삼았던 원전들의 인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열조시집』의 인용빈도가 200여 종 서적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용횟수로 1위를 차지했다.⁵³⁾ 이처럼 높은 인용빈도를 보더라도 『해동역사』 전질에서의 『열조시집』 집록 양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논제이다. 두 문헌의 관계를 온전히 파악하면 『해동역사』의 편찬 특징과 한치윤의 학문적 원천을 논의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해동역사』에서 집록한 『열조시집』의 기록들이 이 역사서의 분류체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예문지」에 수록된 서적, 한시작품과 문장들이고 두 번째는 「인물고(人物考)」에 수록된 『열조시집』 속의 주로 ‘소전(小傳)’에 해당된 내용들이며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부문(部門)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 산재된 기록들이다.

「예문지」 소재 『열조시집』의 기록들은 주로 ①‘경적(經籍)’ 부류(部類)에 수록한 서목(書目)에 대한 기사, ②‘본국시(本國詩)’와 ‘중국시(中國詩)’ 부

53) 김려화, 앞의 논문, 120~121면.

류에 실린 한시 작품들, ③‘본국문(本國文)’부류에 기재한 글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구체적인 정보를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4> 『海東釋史』 『藝文志』에 수록된 『列朝詩集』의 기록 정보

部類	기사 종류	해당 항목	『列朝詩集』 해당 내용	집록 방법
① 經籍	書目에 대한 기사	申用漑의 『續三綱行實圖』를 비롯한 11종 서적과 서예작품	小傳, 自註, 小序	離合法
② 本國詩 中國詩	한시 작품	143제 171수 한시	한시 작품, 소전, 소서	轉載
	한시 작품	8제 11수 한시	한시 작품, 소전	轉載
③ 本國文	序文	許筠 『朝鮮詩選後序』	소전	離合法

『열조시집』에는 조선의 총 42인의 143제 171수 한시를 수록하였다. 최경창(崔慶昌)의 시가 그의 호인 ‘최고죽(崔孤竹)’으로 중복하여 실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1인의 한시 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열조시집』과 대조를 해보면 『해동역사』 『예문지』의 ‘본국시(本國詩)’에서는 다섯 수를 제외시킨 166수를 수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배제시킨 것은 정몽주(鄭夢周)의 <감우(感遇)> 네 수 중의 세 수, 이숭인(李崇仁)의 <고의(古意)>, 태종 이방원(李芳遠)의 <명나라 영락황제에게 바치며(獻大明永樂皇帝)>이다. 고려시대 말기 정몽주의 <감우> 시 네 수는 대부분 고려의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숭인의 <고의> 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살았던 한치운으로서 한시를 채록할 때 이런 작품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또한 태종은 조선 군주이기에 일반 사람의 시와 섞어서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해당 작품을 수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전통사회의 존군사상(尊君思想)의 반영으로 설명된다.⁵⁴⁾ 한편으로 한치운은 『열조시집』 소개 중국 문인이 읊은 조선 관련 작품까지 망라하여 ‘중국시’ 부류에 수록하였다.

한시작품 외에 『열조시집』에는 전겸익이 시인의 생애를 고증하여 작성한 ‘소전(小傳)’과 작품을 분류하여 수록하기 전에 쓴 ‘소서(小序)’도 함께

54) 이상 『해동역사』 『예문지』에 수록된 『열조시집』 속의 한시작품과 관련된 논의는 김려화, 앞의 논문, 167~170면을 참조하였다.

실려 있다. <표4> 속 ① 경적 부류에 기재한 11종 서목이 모두 관련 시인의 생애를 적은 소전이나 소서 속의 기록을 활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열조시집』에 수록된 ‘매월당시(梅月堂詩)’에는 ‘매월당’에 대한 소개와 시 몇 구절이 함께 실려 있다. 한치윤은 매월당을 김시습으로 밝히고 『열조시집』 속 매월당을 소개하는 글에서 김시습의 작품을 언급한 내용을 활용하여 ‘김시습의 『유금오록(遊金鰲錄)』과 『관동일록(關東日錄)』’, ‘김시습의 『매월당시집』과 같은 두 개의 서목과 해당 기사를 편찬하였다. 또 ‘본국문’ 부류에 수록한 허균의 서문 역시 『열조시집』 속 허균의 소전에서 뽑은 것이다.

소전을 활용한 양상이 『해동역사』 『인물고』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85권으로 구성된 『해동역사』에는 권67부터 권70까지가 『인물고』(1-4)에 해당된다. ‘인물고’로 제목을 명명하였지만 사실 여기에 실린 160명 인물에 대한 기사가 모두 중국과 일본 문헌에서 채록하였기 때문에 기사마다 그 편 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 두 구절로 기재한 인물부터 한 두 면으로 기재한 인물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인물에 대한 기사도 한 가지 문헌에서 채록하였는가 하면 또한 여러 문헌에서 채록한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외국의 문헌 속에 기록되었는지, 또 한치윤이 이들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답은 『인물고』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그 속의 『열조시집』 기록을 활용한 현상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인물고』에는 『열조시집』의 기록들이 비교적 많이 인용되어 있는 편이다. 해당 인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人物考』 2 高麗: 鄭夢周, 李穡, 李崇仁, 鄭樞, 李詹, 趙雲佐;

『人物考』 3 本朝: 鄭道傳, 申叔舟, 南袞, 徐居正, 申光漢, 許筠(許篈, 許筠), 李德馨;

『人物考』 4 后妃, 名媛, 中官: 許妹氏.

『열조시집』에 수록한 조선 시인은 41명이지만 『해동역사』 『인물고』에는 13명만 기록하였다. 사실 전경익은 모든 조선 시인들의 소전을 작성한 것

이 아니다. 자료상 제한으로 『열조시집』에 수록한 43명 가운데 26명이 소전 없이 『열조시집소전』에서도 이름만 적혀 있다. 『해동역사』 「인물고」에는 태종 이방원에 대한 기록을 제외시켰고 또 이달(李達), 김시습, 성석린(成石璘)을 비롯한 몇몇 사람에 대한 『열조시집』의 기록을 「예문지」나 「관씨지(官氏志)」, 「석지(釋志)」, 「교빙지(交聘志)」, 「지리고(地理考)」와 같은 다른 부문에 인물 중심이 아닌 기사로 기입하였다. 이덕형(李德馨) 경우에는 소서에서 한 번 언급한 인물인데 집록 방법으로 관련된 기사를 뽑아 「인물고」의 한 사람으로 수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집록 작업을 걸쳐 결국 「인물고」에서 13사람에 대한 『열조시집』의 기록만 수록된 것이다.

원문 대조를 통해 『열조시집』 ‘소전’ 속의 일부 내용들이 조선 국왕의 종계, 정통성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해동역사』에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정몽주, 이색(李穡), 이송인, 정도전(鄭道傳) 네 사람의 소전 속 일부 문제가 되는 내용만 빼놓고 수록하였다. 모두 조선의 입장에서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적인 기록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하면 한치윤이 전겸익의 논평에 대해 가급적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동역사』에서 『열조시집』의 소전, 소서를 한시 작품과 분리하여 집록하는 편찬방식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겸익은 원호문(元好問)의 『중주집(中州集)』의 ‘시를 빌려 역사 기록을 보존한다(重於借詩以存史)’는 취지를 본받아 『열조시집』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그의 문학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시로 역사를 보존한다(以詩存史)’는 것이며 학자들이 이를 ‘시사관(詩史觀)’이라고도 규명하였다. 이러한 문학관 역시 『열조시집』의 시사적(詩史的) 성격을 통해 두드러지게 구현되었다. 특히 시인들의 소전에 담은 전겸익의 고증 성과와 역사적 평론이 그의 ‘시사관’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⁵⁵⁾ 선행연구에서는 『열조시집』과 주이준(朱彝尊)의 『명시종(明詩綜)』에 실린 같은 작품 간의 텍스트 대조·비교를 통해 한치윤이 전겸익의 시선집 편찬 성과를 우선하는 모습을 확인하였

55) 『列朝詩集』과 錢謙益의 詩史觀에 대한 논의는 孫之梅, 앞의 책, 316~332면; 嚴志雄, 앞의 논문(2014), 63~84면; 嚴志雄, 『錢謙益의 詩史 理論與實踐』(中華書局, 2019), 77~82면 등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고 또 이것이 한치윤이 전겸익의 시사적 문학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추론을 했었다.⁵⁶⁾

앞서 살핀 『열조시집』에 대한 『해동역사』의 집록 상황을 통해 한치윤이 전겸익의 시사적 문학론에 대한 실천성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소전과 소서를 한시 작품과 분리하여 집록했다는 점에서 그가 전겸익의 ‘시사관’을 역사서 편찬에 도입하여 자기화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사서 예문지에 한시 작품을 수록했다는 『해동역사』의 현상적 특징이 주목된다. 비록 이 특이한 현상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 논의된 바 있지만⁵⁷⁾ 전겸익의 저술을 집록한 『해동역사』의 편찬 상황을 감안하면 예문지에 한시 작품을 대량적으로 기재한 배경에는 전겸익의 ‘시사관’의 수용이 개입되었음을 추측된다. 즉 한치윤이 한시 작품을 일일이 역사서에 기재한 배경에는 전겸익의 ‘시사관’을 받아들여 한시의 사료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였다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소전과 소서에 대한 활용 양상에서도 한치윤이 인물에 대한 전겸익의 역사고증과 사론적 평가를 주체적으로 재편집한 모습이 포착된다. 가령 몇 수의 한시 작품을 수록한 『예문지』 속에 20여 사람의 소전 기록이 섞여 들어 있으면 과연 그 내용이 역사서술 속에서 부조(浮彫)될 수 있을까? 한치윤은 전겸익의 편찬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구축한 역사서술 체계 속에서 소전의 내용을 적취(摘取)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록한 기록에 대해 안설(按說)을 덧붙여 온전한 정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관씨지』에서 확인된 『열조시집』의 소전 기록이 5개에 이르는데 집록한 기록마다 한치윤의 안설이 첨부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5>로 정리된다.

56) 김려화, 앞의 논문, 168~170면.

57) 김려화, 「19세기 私撰史書 속의 藝文志의 기술방식과 특징」, 『국문학연구』 제44호, 국문학회, 2019, 33~57면.

<표5> 『海東釋史』 「官氏志」 소재 『列朝詩集』의 기록과 按說

순번	집록한 『열조시집』의 기록 내용	안설의 주요 내용
1	都僉議侍中 柳濯이 極諫했다.	都僉議侍中의 변혁
2	侍中 李穡이 경사로 왔다.	侍中의 변혁
3	鄭夢周가 政堂文學이 되었다.	政堂文學의 작품
4	鄭樞가 右司議가 되었다.	右司議의 작품과 변혁
5	輓金太常郎詩가 있다.	太常郎의 설정 시기

안설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 한치윤이 전겸익의 고증에 대한 추가 고증이자 보충이다. <표5>에서 제시한 보충설명형 안설들과 달리 『열조시집』 소전 내용 속의 오류를 정정하는 안설도 확인된다. 아래 이달에 대한 안설이 그러하다.

살펴보건대, 이달의 자는 달부(達夫)이고 호는 손곡(蓀谷)이다. 『열조시집』에 손곡의 시 36수를 실으면서 저자의 성명은 신지 않았다. 죽타(竹垞) 주이준의 『명시종』에는 이달의 시 1수를 실어 놓고는, 또 손곡의 시 다섯 수를 실으면서 “그의 이름은 미상이다”라고 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외국의 시를 기록하는 데 이처럼 소루(疎漏)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按達, 字達夫, 號蓀谷, 『列朝詩集』載蓀谷詩三十六首, 而不載姓氏, 竹垞『詩綜』既載李達詩一首, 又載蓀谷詩五首, 而曰‘不詳其名. 中國人記外國詩, 毋怪疎漏之若是也.’)⁵⁸⁾

『열조시집』과 『명시종』 속의 분명하지 않은 정보를 제대로 밝히면서 두 시선집 속의 정밀하지 못한 점을 비평한 것이다. 이 안설은 한치윤의 논평이 들어갔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열조시집』 소재 기록에 대한 『해동역사』의 대부분 안설이 정보를 보충설명하거나 오류를 정정하는 데 그친다. 『초학집』과 『유학집』을 포함한 전겸익 저술에 대한 집록 가운데 이처럼 논평까지 붙이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한치윤이 보통 안설에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이 안설 속에는 비록 아주 간결하고 절제된 태도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58) 『海東釋史』 권49 「藝文志4」 「本國詩」.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전겸익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하는 자리에서 전겸익만을 겨냥하지 않고 더불어 주이준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외국 문헌뿐만 아니라 국내 저서도 광범위하게 섭렵한 한치윤이 18세기 후반 조선 지식층에 만연하던 전겸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겸익을 비판 심지어 배척하는 주류 분위기 속에서 『해동역사』에서는 전겸익 저술에 대해 엄청난 편폭을 할애하여 집록 작업을 진행하였다. 게다가 한치윤은 전겸익의 시사적 문학관을 받아들여 사서 편찬에서 ‘시사관’을 실천적으로 재수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면모는 사실 한치윤이 역사학자로서 학문적 태도에 입각하여 학구적 자세로 전겸익을 수용했음을 말하고 있다. 같은 사서를 편찬하는 학자 입장에서 한치윤은 『열조시집』에 실린 일부 조선 관련 기록들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전겸익의 고백을 통해 그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했고 안설을 통해 보충설명하거나 오류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겸익을 비판하는 주류 목소리에 비하여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전겸익에 대한 조선 문단의 전반적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또한 학자로서 학문 연구에 있어서 추구한 바 있기 때문에 한치윤은 위의 안설에서 절제하면서 한 마디 말로 은근히 비판한 것이다. 이 한 마디 논평으로 전겸익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셈이다.

그 밖의 『해동역사』에서는 한시 수록에 있어서 『열조시집』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았던 점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치윤은 여러 문헌에 수록된 한시 작품의 구체적인 시어(詩語)가 상이할 때 『열조시집』의 텍스트를 먼저 따랐다. 그리고 상이한 내용에 대해 협주 형식으로 적었다. 일례로 주이준의 『명시종』도 주요 집록 대상 자료로 삼았는데 대조를 해보면 『열조시집』의 기록을 우선시하는 편찬 경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 시선집에 실린 조선인의 한시는 21인 28제 29수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29수 한시의 시구는 두 시선집의 기록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동역사』에서는 우선 『열조시집』의 기록을 따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치윤이 주이준보다 전겸익의 시집 편찬 작업에 대해 더 수공해서였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열조시집』 소개 조선의 한시작품 앞에 소서 한 편이 실렸는데 그 내용이 전부 오명제(吳明濟)의 『조선시선(朝鮮詩選)』의 서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는 전겸익이 조선의 한시를 수록할 때 의존한 주 텍스트가 바로 『조선시선』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⁵⁹⁾ 이 소서를 통해 전겸익은 자신이 참고했던 오명제의 『조선시선』 소개 한시가 조선 본토 텍스트와 가장 가깝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데 『열조시집』 속 조선한시의 선시(選詩) 작업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이 없지 않다. 해당 소서가 『해동역사』에도 집록되었으니 한치윤이 분명히 두 시 선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한치윤은 오명제의 『조선시선』을 보지 못했다.⁶⁰⁾ 비록 많은 오류를 안고 있으나 『해동역사』에서 집록대상으로 삼은 기타 외국 문헌에 비하여 『열조시집』이 조선의 한시 텍스트와의 긴밀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에 한치윤이 이 책에 소개된 한시 텍스트를 우선시했던 것이다. 사료의 특징과 사료 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역사문헌가로서 한치윤의 학문적 탐구 자세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한편, 『해동역사』에서 『두시전주』에 대한 집록은 하나만 확인된다. 두보의 <장태상에게 쓴 시 이십 운(奉贈太常張卿二十韻)> 첫 구절은 ‘방장산은 삼한의 밖에 있다(方丈三韓外)’인데 전겸익은 『조선지(朝鮮志)』를 인용하면서 ‘방장(方丈)’라는 시어에 대한 주석을 달았다. 이는 『해동역사』 속집 권 13 『지리고(地理考)』 13에서는 지리산에 대한 설명으로 수록되었다. 『두시전주』에 대한 집록이자 『조선지』 속 해당 기록에 대한 재인용이기도 하다.

59) 錢謙益, 『列朝詩集』(閩集), 『朝鮮四十三人』, “會稽吳明濟子漁, 『朝鮮詩選序』曰:“萬曆丁酉之歲, 司馬公贊畫東援朝鮮, 明濟以客從. 戊戌季春, 涉鴨綠, 軍于義州. 孟夏, 從司馬公獵於城南, 及坎馬敗, 值雨, 休於村舍, 遇李文學, 能詩, 解華語. 次日訪我于龍灣之館, 賦詩相贈. 於是文學輩稍稍引見, 因訪東海名士崔致遠諸集, 辭曰:“小國喪亂, 君臣越在草莽幾七載, 首領且不保, 況於此乎?” 然有能憶者, 輒書以進, 凡二百篇. 及抵王京, 館於許氏, 伯仲三人, 曰筇、曰箴、曰筠, 以文鳴東海. 筠敏甚, 能誦東詩數百篇, 復得其妹氏二百篇, 而尹判書根壽亦多搜殘編, 所積盈篋. 己亥, 余自長安復征朝鮮. 館于李氏, 朝鮮議政德馨也. 雅善詩文, 益請搜諸名人集, 自新羅至今朝鮮, 共百餘家. 披覽之, 凡兩月, 得佳詩若干篇, 類而書之.”許筠後序曰:“朝鮮承襲周太師禮義之教, 風化之美, 與中國稱. 昔周官採詩, 夫子採詩, 三韓不及, 遠莫致乎? 夫遺於千載前, 而遇於千載後, 小國之音, 始與成周齒, 子漁之功盛矣哉!” 明濟又撰『高麗世紀』一卷, 記朝鮮終始最詳, 蓋概括東國史而爲之也.”

60) 『海東譯史』에서 吳明濟의 『朝鮮詩選』이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사실 한치윤이 직접 이 책을 열독하지 못했다. 모든 관련 기사가 전부 『列朝詩集』이나 『明詩綜』에서 인용한 것이다.

IV. 한치윤(韓致淵)의 전겸익 수용과 그 의의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한치윤은 『해동역사』의 편찬에서 『초학집』, 『유학집』, 『열조시집』 그리고 『두시전주』까지 포함한 전겸익의 저서 속의 조선 관련 기록들을 가급적으로 채록하여 역사서 편찬에 활용하였다. 활용도를 보면 『열조시집』에 대한 집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초학집』과 『유학집』이며 『두시전주』에 대한 집록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집록 상황이 어느 정도 『해동역사』의 내용 구성과 서술 체계로 결정되긴 했지만 전겸익 저서에 실려 있는 조선과 관련된 기록의 구체적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한치윤이 『열조시집』에 수록된 조선 문인의 소전과 한시를 대부분 채록했기 때문에 『해동역사』에서 『열조시집』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겸익 저서 속의 조선관련 기록들이 『해동역사』에서는 다양한 역사서술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편찬목적에 위하여 일부 기록들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집록 상황을 통해 한치윤이 전겸익의 학문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전겸익의 시사적 문학관을 받아들여 한시 작품과 인물 소전의 사료적 가치성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이는 『열조시집』의 소전과 한시작품을 분리하여 사서에 수록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역사서 편찬에 있어 전겸익의 저서에 대한 집록 작업을 수행할 때 한치윤에게는 분명한 취사택선의 기준이 있었다. 우선 조선의 국왕을 언급한 기록을 회피함으로써 존왕의식을 드러내며 한자문화권에서의 사찬사서 편찬의 전통관례를 지켰다. 이것이 『해동역사』 편찬의 일관된 취사원칙이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술이나 사실과 맞지 않다고 보는 기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배제시킨 경우가 있어 일정한 취사선택의 기준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일례로 전겸익이 쓴 『황화집발문』을 그대로 기재했지만 그의 <옥중에서 쓴 잠시 삼십 수>의 열한 번째 시를 제외시킨 사실에서 그러한 점이 확인된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 변통성이 있는 사료 선택 양상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역사학자로서 한치윤이 가졌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고뇌’는 한치윤이 전겸익이라는 문제적 인물을 접할 때부터 이미 생겼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전겸익 인식과 수용에 대한 연구는 그의 ‘변절(變節)’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삼고 진행해 왔다. 그만큼 조선 문단의 전겸익 수용에는 유교의 정치적 가치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에서 전겸익의 수용과 인식은 문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수용 대상의 삶을 관조(觀照)하여 평론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컨대 명말청초의 복잡한 국면을 맞은 전겸익이 선택한 일련의 삶의 경로로 인해 조선에서 그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양상도 매우 복잡하였다.

조선에서 전겸익의 수용과 인식에 관한 통시적 연구와 일부 개별 연구를 통해 그 전반적 면모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열조시집』의 유입을 계기로 전겸익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생평과 문학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전겸익의 문학을 옹호하여 심취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의 문학비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기화하려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수용 초기 때의 인식과 평가의 특징은 긍정과 부정이 서로 착종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겸익의 실절한 삶과 조선 문학을 비하하는 의논으로 전겸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고 한다. 특히 변절 사실로 인해 그의 문학과 비평을 폐기하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겸익의 변절 사실이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⁶¹⁾ 하지만 지식인들 간의 정보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로 그의 변절의 구체적 상황과 정확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데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겸익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계속 만연하는 가운데 그의 문학을 여전히 추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변용하는 문인들도 있는가 하면, 그의 불명예스런 처신과 문학적 성과를 구분하여 받아들이는 문인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이희지(李喜之), 이학규(李學逵), 이건창(李建昌)을 비

61) 조선에서 전겸익의 문학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문학과 비평이 조선의 의고파를 비판할 논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명대문학의 구도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학의 유입과 그의 변절 사실이 광범위하게 알려지면서 그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은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롯한 문인들이 전겸익 한시의 미적 특질과 문학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겸익의 저서를 가장 치밀하게 읽은 조선 문인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유만주(兪晩柱)가 그의 실절한 삶의 선택과 문학적 성취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수용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전겸익의 연보인 『전목재연보(錢牧齋年譜)』를 편찬하면서 역사가로서 그의 면모에 특히 주목하였다. 유만주가 전겸익 수용에서 객관적이고 주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겸익 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용이 있었기 때문이다.⁶²⁾

조선후기 전겸익 수용의 전반적 상황은 이와 같다. 그렇다면 한치윤의 주변 인물들이 전겸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치윤이 『해동역사』 편찬에서 이덕무(李德懋)의 저술을 많이 참고하였던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이다. 이덕무의 문집에서 전겸익을 읽은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겸익의 글을 통해 역사와 문학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이덕무의 꼼꼼한 전겸익 독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를 편찬할 때 전겸익의 저서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유학집』과 『열조시집』의 인용 횟수가 39건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⁶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덕무는 전겸익의 처신, 학문, 문장을 혹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전겸익의 변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건륭제가 전겸익의 문집을 금서(禁書)로 지정했던 문서까지 통째로 베껴 문집에 실었다.⁶⁴⁾ 이덕무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치윤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치윤과 교류를 맺었던 정약용이 역시 전겸익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전겸익이 『동정이사록(東征二士錄)』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원한 장수들의 공적을 ‘사실대로 쓰는 것(據事直筆)’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엉뚱한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면서 전겸익이 비록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의 저작에는 편파적 논조가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하였다.⁶⁵⁾ 그밖에 1799년에 한치윤이 수행했던 연행사절단의

62) 이상 조선후기 전겸익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관한 논의는 윤지훈(2008), 김하라(2014, 2015), 류화정(2015), 이국진(2015) 등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리했다.

63) 윤지훈(2009), 앞의 논문, 41면 각주 18번.

64)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7, 「正祖二年五月」.

부사였던 서형수(徐滢修)는 전겸익의 한시 「접몽(蝶夢)」을 차운하여 공감
을 한 바 있으며 한치윤의 사우(師友)인 유득공(柳得恭)은 전겸익이 중국
시가사(詩歌史)에서의 위상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⁶⁵⁾ 또한 『해동역사』
「지리지」를 소장하고 있었던 서유구(徐有楨)는 전겸익의 비평을 활용하고
옹호하는 지식인에 속한다. 이처럼 한치윤 주변 인물들에게서 보인 전겸익
인식과 수용양상도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전겸익 인식과 수용에 비하면 한
치윤의 전겸익 수용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학구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한치윤은 역사학자로서 사서 편찬의 목적으로 사학적 시각
에서 전겸익을 접근하였다. 그는 특히 전겸익의 시사적 문학관을 받아들여
면서 『해동역사』 편찬 작업에 변용하였다. 물론 한치윤이 전겸익을 주목하
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열조시집』을 비롯한 그의 저서 속에 상당한 조선
관련 기록들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겸익 저서 속의 조선관련 언
급들은 중국 지식인들이 조선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는 데 효과적이었다.
한치윤은 이러한 자료들의 효용성과 명말청초 지성사에서 전겸익의 역량
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그의 저술을 『해동역사』의 집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어쩌면 집록하는 과정에서 전겸익 학문에 대한 한치윤의 인식이 심
화되었을 것이다. 이점은 전겸익의 ‘시사관’을 받아들였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시사관’을 수용하고 또 자기화, 체계화하는 양상에서 한치윤의 역사가로
서의 식견과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사학적 측면에서 전겸익의 업
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타 조선 문인들처럼 비난이나 옹호, 또는 전겸익
생평에 대한 의논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조선후기 전겸익 수용
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학문적 독립성을 견지하였다. 그가 전겸익 수용에
서 보여준 이와 같은 학문적 독립성은 역사가로서의 그의 탐색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치윤이 다룬 역사 서술과 그 역사적 서술을
제공해주는 사료(史料)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편찬자인 그가
편찬 과정에서 탐구하는 자세로 사료를 선택하고 편집하여야 외국 자료를

65)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2, 「古詩二十四首」.

66) 이국진(2015), 앞의 논문, 86~90면.

통해 자국 역사를 구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 단정을 짓는 것을 회피하고 나름 자료의 체계적 배치를 통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했다. 물론 이는 한치윤이 외국 자료를 통해 자국 역사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평생 심혈을 기울여 『해동역사』를 편찬한 한치윤으로서 사학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다뤄야 할 지식 정보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 편파성이 없는 학문적 자세가 요구되었다. 그는 전겸익의 저작을 접했을 때도 저술의 주체인 저자의 성향이나 이력보다는 그 저작 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더 주목했던 것이다. 이러한 탐색적 자세는 그가 전겸익 수용에서 보인 학문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

한치윤이 학구적인 자세로 전겸익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전 시기 학자들의 비평과 수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진 지식인이지만 선학들의 지식 축적이 배경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의 전겸익 인식과 수용은 보다 조금 달라진 면모를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인류사회의 진보는 무수한 단계별 발전으로 이어져왔었던 듯이 지성사 속의 한 가지 인식의 전개도 다양한 분별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19세기 초기에 편성된 『해동역사』에서 드러난 전겸익에 대한 한치윤의 인식과 수용은 17세기 중후반부터 꾸준히 축적해온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단계적 성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한치윤의 전겸익 수용에는 한계성도 있다. 전겸익은 『초학집』에 실린 『태조변증실록』을 통해 청대 역사고증학의 효시를 열었다고 한다.⁶⁷⁾ 『태조변증실록』은 다양한 역사 자료를 통해 명나라 태조의 시록 속의 관련 기록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전겸익의 사론까지 첨부하였다. 비록 이 책에 조선을 언급한 기록이 없지만 전겸익의 사학적 성과가 충분히 한치윤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료에 대한 명확한 고증을 통해 진위를 변별하고 포괄을 가리는 전겸익의 역사 서술 방식은 한치윤의 『해동역사』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 한치윤의 대부분 고증은 보충설 명이나 오류수정에 그치며 명백한 결론을 내리거나 선악을 가리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령 전겸익의 저서에 대한 집록 내용에서도 충분한

67) 雷宜遜, 『錢謙益의著作,人品和詩學』, 『中國韻文學刊』, 湘潭大學, 1998(2), 11면.

논평거리는 제공되어 있지만 한치윤이 고증에서 보여준 감정이 절제된 저술방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없지 않다. 『해동역사』의 특징적 면모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한계로 양면성을 지닌다.

V. 결론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 초 조선의 역사학자 한치윤이 『해동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명말청초 대가급 문인 전겸익의 저서에 대해 어떻게 집록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저서별로 집록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치윤이 사서 편찬에서 전겸익의 저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집록 양상을 근거로 사학자인 한치윤이 역사상 문체적 인물이었던 전겸익을 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후자의 ‘시사관’을 받아들여 그 이념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사서 편찬에서 실천하였다. 이처럼 자기화,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한치윤의 주체적인 역사서 편찬방식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전겸익을 수용하는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간 언급해왔던 전겸익 수용에서 보였던 문학적 옹호나 비평 혹은 인격적 비판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겸익은 조선후기 한문학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며 그의 문학론 및 작품이 조선후기의 문학론 및 개별 작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전겸익 수용과정과 인식양상에 대한 연구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조선에서 전겸익 저서의 유통 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논의가 없어 그의 문학과 학술이 조선에서 수용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고의 제2절에서는 서적 유통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 문인들이 전겸익에 대한 관심의 폭이 얼마나 넓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서면에서 보인 전겸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적 서적 유통 상황에서 확인된 그의 다양한 저작물과 재판찬물이 그가 조선후기 문단에 끼친 영향을 말해 주고 있다.

한치윤이 『해동역사』 편찬에서 보여준 전겸익 저서에 대한 집록양상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의 역사고증과 문학사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음을 증빙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수용 양상은 조선후기 전검익 관련 논의의 다양성을 가능케 하였으며 조선후기 지성사 전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동역사』의 집록 상황을 통해 밝힌 한치윤이 전검익에 대한 수용은 앞으로 조선후기 전검익 수용 양상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례를 제공할 것이며 명말청초의 중국 문헌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층의 인식과 수용 양상을 확인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해동역사』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논제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고전종합DB.
范燁 외, 『後漢書』, 中國基本古籍庫.
韓致滄, 『海東譯史』,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_____, 『海東譯史』, 한국고전종합DB.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종합DB.
李宜顯, 『陶谷集』, 한국고전종합DB.
朴趾源, 『熱河日記』, 한국고전종합DB.
錢謙益 著, 『牧齋有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6.
_____, 『錢牧齋全集』, 上海古籍出版社, 2003.
_____, 錢曾 箋注, 錢仲聯 標校, 『牧齋初學集』, 上海古籍出版社, 2009.
_____, 許逸民 林淑敏 點校, 『列朝詩集』, 中華書局, 2007.
徐松 외, 『清史稿』, 中國基本古籍庫.
元在明, 『芝汀燕記』, 한국고전종합DB.

2. 단행본

- 강명관, 『공안과와 조선후기』, 소명출판, 2007.
_____, 『농암잡지평석』, 소명출판, 2007.
_____,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孫之梅, 『錢謙益與明清初文學』(增訂版), 山東大學出版社, 2010.
嚴志雄, 『錢謙益의 '詩史'理論與實踐』, 中華書局, 2019.
丁功諡, 『錢謙益文學思想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6.

3. 논문

- 김려화, 『『해동역사』 『예문지』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19세기 私撰史書 속의 藝文志의 기술방식과 특징』, 『국문학연구』 제40호, 국문학회, 2019, 33~57면.
김윤조, 『조선 후기 한문학에 있어서 錢謙益』, 『대동한문학』 제13호, 대동한문학회, 2000, 71~88면.
김하라, 『유만주의 <전겸익연보>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265~308면.

- 김하라, 『유만주의 전겸익 수용-조선 후기 지식인이 명칭 교체기 문학을 읽는다는 것』, 『한국문화』 제6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3~42면.
- 남재철, 『『薑山筆叢』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0호, 한국한시학회, 2002, 285~314면.
- 류화정, 『조선후기 錢謙益의 수용과정과 인식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309~342면.
- 嚴志雄, 『전겸익의 고려말, 조선초의 역사와 시에 관한 시론』, 『민족문화연구』 제6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51~87면.
- 민복기, 『陶谷 李宜顯 散文批評의 淵源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경남, 『王世貞을 바라보는 두 大家의 시각-金昌協과 錢謙益의 왕세정 이해』,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229~267면.
- 심경호, 『燕巖의 錢謙益論』, 『한문교육연구』 제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88, 37~56면.
- 윤지훈, 『朝鮮後期 文人들의 錢謙益 批評』,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35~64면.
- 이국진, 『조선후기 문인들의 전겸익 한시에 대한 관심과 의미』, 『한문학논집』 제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73~114면.
- 임형택, 『한문세계의 중심과 주변-『列朝詩集』·『明詩綜』과 朝鮮詩部』, 『대동문화연구』 제9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299~328면.
- 段曉亮, 『錢謙益의 明史考證及影響』, 『石家莊鐵道學院學報(社會科學版)』, 石家莊鐵道學院, 2008[9], pp.32~36.
- 雷宜遜, 『錢謙益의 著作, 人品과 詩學』, 『中國韻文學刊』, 湘潭大學, 1998[2], pp.10~17.
- 李志, 『錢謙益<列朝詩集>成書時間舉疑』, 『哈爾濱職業技術學院學報』, 哈爾濱職業技術學院, 2020[2], 155~156.
- 王俊義, 『論錢謙益對明末清初學術演變的推動影響及其評價』,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學報』,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1996[2], pp.48~57.
- 王紅蕾, 『『絳雲樓書目』各抄本互異原因考略』, 『文獻』, 文獻雜誌編輯部, 2010[3], pp.64~68.

The acceptance about Qian Qianyi (錢謙益)

by historians of Joseon Dynasty

- Based on *HaeDongyeoksa*(『海東譯史』) -

JIN, LIHU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xcerption from Qian Qianyi(錢謙益)'s works in Han Chi-yun(韓致堯)'s *HaeDongyeoksa*, and then to elaborate the intellectual's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Qian Qianyi in late Joseon Dynasty. Until now, the discussion on Qian Qianyi's influence on the literary world in late Joseon Dynasty mainly focuses on two aspects. One is about literary creation and criticism, and the other is about his disloyalty. However,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can be found that the intellectuals in late Joseon Dynasty also paid close attention to Qian Qianyi's historical achievements. Excerpts from Qian Qianyi's works in *HaeDongyeoksa* proved the positive acceptance of Qian's historical achievements by intellectual of the late Joseon Dynasty.

Facts have proved that Qian Qianyi's anthologies and works were widely spread after they flowed into Joseon. Various versions and transcripts of his anthologies *ChuXueJi*(『初學集』) and *YouXueJi*(『有學集』) can be found in South Korean library institutions. Of course, we can also see the literature materials that re edited his articles and poems into volumes. The anthology of *LieChao Poems*(『列朝詩集』) and *DuShi Annotation*(『杜詩箋注』) were also circulated in South Korea. He compiled *Gui and Qian's Letters*(『歸錢尺牘』), which included letters and *Format and Specification of Letters*(『簡式類編』) also circulated in Joseon.

Qian Qianyi's records about Joseon in *ChuXueJi*, *YouXueJi*, *LieChao Poems* and *DuShi Annotation* were included in Han Chi-yun's history book *HaeDongyeoksa*. Han Chi-yun accepted Qian Qianyi's poetic history. Therefore, he didn't only affirm the historical value of poetry works and poet's shot biography in the anthology of *LieChao Poems*, but also distinguished poetry works from poet's shot biography and included them in the *Yeamunji*(藝文志) and *Inmulgo*(人物考) in the *HaeDongyeoksa*.

In the compilation of history books, when Han Chi-yun excerpted Qian Qianyi's works, he not only abided by certain trade-off standards, but also excluded some contents that were difficult to accept from the standpoint of Joseon. In the choice of historical materials, we can capture the unique selection criteria and flexibility of the compilers. From this point, we can also see the deep thinking of a historian at Joseon Dynasty.

The biggest feature of Han Chi-yoon's acceptance of Qian Qianyi's scholarship is that he approached it academically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ccepting poetic history, self-cultivating and systematizing it shows his ability and vision as a historian. Like other Joseon intellectuals, he did not discuss Qian Qianyi's life review and did not criticize or advocate. This seems to have been Han Chi-yoon's principle of trying to maintain only thorough academic acceptance without adding any subjective value judgment or artificial evaluation in the complex situation of accepting Qian Qianyi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pecial aspect of acceptance shows the diversity of discussions related to Qian Qianyi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proves the dynamics of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Qian Qianyi, *HaeDongyeoksa*, excerption, *ChuXueji*, *LieChao Poems*, compilation of history, poetic history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2021. 11. 10. 게재결정: 2021. 11. 10.
